불교인문학살롱 ❶ 〈화엄경〉과 소소일상



▶조정은 수필가는 1960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1996년 〈한국 수필〉로 등단했다. 현재 격월간 〈에세이스트〉 편집장이며 문학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다.

번뇌 불꽃 일으키며 사는 '나'를 만나다

〈화엄경〉은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한 문답이 〈화엄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묻는 자와 답하는 자의 경지는 자리가 다를 뿐 깨달음의 경지는 거의 대등하다. 앎의 깊이가 있어야 자신의 무지를 알아챌 수가 있고 무지를 알아채야 질문을 낳을 수가 있다.

나는 〈화엄경〉의 진리는 통 모르지만 문장에 매료되었다. 역설적이며 모순어법으로 점철된 문장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뜻이 분명해지기보다 아스라이 멀어지는 매혹이 있다.

특히 "모든 번뇌의 불꽃을 끝까지 멸하였지마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일으키며, 모든 법이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아지랑이 같고, 변화와 같고, 물속의 달 같고, 거울 속에 영상 같아서 성품이 둘이 없는 줄 알지마는, 마음을 따라 한량없이 차별한 업을 짓습니다"는 경구는 넘치도록 매력적이다. 나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고 부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나는 2020년 10월 경기도 양평의 맨 동쪽 경계인 양동면 석곡섬실마을로 들어왔다. 이곳은 나지막한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조그마한 분지다. 산마다 물이 풍부해 정상 근처까지 조붓한 다랑이논들이 이어져 있다.

서울과는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임에도 문명에서 소외된 오지 중의 오지. 잡지 편집 일을 십여 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고 내 자신을 유배시키듯 이곳으로 들어왔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소개해준 것도 아니다. 그저 여행 중에 길을 잘못 들었다가 매료되어 들어온 것뿐이다. 연로한 화가가 작업실로 썼다는 아주 작은 오두막이 내 형편에 딱 맞는 시세이길래 앞뒤 가리지 않고 이사했다.

"나도 콩 한 말 들고 토굴로 들어가면 안 나올 거예요." 아침마다 두 시간씩 독경하는 남편에게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면 그를 야유하며 협박하는 말이었다. 그럴 때 내가 상상하던 토굴에 비하면 오두막은 궁전이다.

지난 7월 잡지사 발행인 선생이 이곳으로 와서 내 오두막 옆에 붙은 폐허 같은 땅을 매입했다. 수목이 우거진 땅 안쪽에 십수 년간 방치돼 처치 곤란한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집 한 채가 있었다. 중장비를 불러 우거진 잡초와 나무를 베어 끌어내는 작업만 이틀이 걸렸다. 그래봐야 겨우 안마당까지 발 디딜 틈이 생긴 정도였다.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포클레인으로 그 무덤 같은 집을 밀어버리자고 입을 모았지만, 선생은 집 꼴이나 구경한 다음 헐자고 고집을 부렸다.

선생은 당뇨 30년 차다. 인슐린을 맞은 지 십수 년, 순환기 여기저기 고장도 다채로웠다. 작년 1월부턴 신장투석이 불가피했고 5월에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멎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서너 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넉 달 지나 9월에는 뇌출혈로 대수술을 했다.



의사들은 매번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일렀고 깨어나도 육신이 멀쩡하긴 어려울 거라고 했다. 머리 뒤쪽에 구멍을 뚫고 관을 넣어 괴어있는 피를 뽑아내는데 이미 엉겨붙은 피는 쉬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거짓말처럼 육신은 멀쩡했는데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세계 평화의 길은 문학밖에 없는데 이번 저승에서 돌아오는 중에 수운 최제우를 만나 그 길을 열어갈 확실한 로드맵을 완성했다느니, 무극대도는 사소한 사람 사소한 일상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느니, 그러면서 유튜브 도올 티비에서 수운 최제우에 관한 강의를 심취해 들었다. 도올의 신간 〈동경대전〉을 읽다가 문장 하나에 꽂히면 전화해서 내게 쏟아내는 열강은 끝이 없었다.

그렇게 꿈과 현실을 오가는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나는 양동 산속에 있고 그는 전라도 광주의 병원에 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통화를 했다. 깊은 밤에도 혹시 전화가 올지 몰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가족들조차 정상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조심스런 견해를 내놓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섬망 상태에서 외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의 진정한 소망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 멀쩡할 땐 심각한 것 하나 없이 실없는 농담만 실실하던 선생이 갑자기 진지해진 것이다. 그가 생시에 있지 않아도 좋았다. 문예지를 창간할 때 하도 호기롭게 큰소리 빵빵 치며 세상을 깜짝 놀래킬 기세여서 나도 하던 일 팽개치고 올인해본 것인데, 병든 몸으로 그 작은 문학단체를 이끄는 데도 힘겨워 빚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며 헉헉거리다가 이렇게 혼자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인터넷카페나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죽지도 않은 사람을 벌써부터 폐기처분하려는 몇몇 사람의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역설적 모순어법 '화엄경' 경구 보며
내 상황과 비슷… 자신 반추하게 돼
아픈 발행인과 딸 돌보며 감정 격류
번뇌 곱씹는 게 지금 나의 '제1의제'

나는 어디에도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앉아 주문을 외웠다. 돌아와라.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 한 줄이라도 당신의 문장을 써라. 당신의 일을 완성시켜라. 나는 젊어 출가도 해봤고 불자인 남편 덕에 매일 독경 소리에 깨어나곤 했으나, 이 절박한 상황에선 불경의 한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다. 모든 진리의 문장이 떠난 자리에 단 하나 '생명'이 들어앉았다. 죽지 마라,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그는 두 달 가까이 섬망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이 멀쩡히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투석에 한계가 왔다. 신장 이식이 불가피했다. 그의 가족들이 이식 적합도 검진을 받았으나 모두 불합격. 내가 나섰다. 나는 건강은 좋은데 비혈연이라는 게 문제였다. 돈을 받지 않고 증여할 만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선생과 내가 함께한 문예지 역사를 서술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200쪽 분량의 책 한 권을 만들었고 타 문예지 발행인들의 인우보증서까지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수술인가가 나기까지 무려 넉 달이 걸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술하고 두 달 지나 7월 말 이곳으로 오셨다.

선생은 토방으로 올라서서 잠시 추녀를 올려다보고 방으로 들어가 맨살을 드러낸 채인 흙벽과 기둥과 천장 서까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곤 신음처럼 토했다.

"으으음,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걸 부셔버리겠다고?"

돌아보는 선생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갔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6.25 때 이 조그만 동네에 네이팜탄 두 발이 떨어졌어. 피난에서 돌아와 보니 집은 잿더미가 되었어. 당장 식솔들 비바람 피할 데도 없었을 거라고. 산에 가서 나무 베고 내에 가서 돌멩이 줍고 논에 가서 흙 파다가 집 짓는 가장의 마음이 그대로 여기 새겨져 있잖아. 이걸 깨끗이 쓸어내면 그만일까."

누군가 말했다.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훨씬 더 들 겁니다. 집이 99평이나 돼요. 쓸데없이 넓기만 한데 어쩌시려고요?"

선생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너른 방 한가운데 물색없이 서 있는 울퉁불퉁 휘어진 기둥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얼굴이 돌 맞은 양재기처럼 구겨졌다. 버려진 집마저 생물로 보는 그의 마음. 어쩌면 그 집은 선생 자신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일 것이다. 당신은 당신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집은 산 채로 고려장된 늙은이였다.

팔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집의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공사를 맡은 이는 한 달 안에 끝낼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눈이 펄펄 날릴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일단 중지하고 선생은 아쉬운 대로 방에 불만 넣은 집으로 들어갔다. 이사하기 전, 빈 집에 중환자인 선생 혼자 기거하는 게 걱정스러워 서른 후반의 아직 미혼인 막내딸을 불러왔다. 그런데 막내딸은 새집으로 들어가길 거부하고 내 집 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았다. 나로선 이중 부담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선생의 방은 사방 5m 너비다. 세 면의 벽에 'ㄷ' 자로 책장을 짜넣고 1m쯤 간격을 둔 가운데 덩그러니 침대를 넣었다. 편백나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행거 하나, 작은 냉장고와 콘솔과 약장이 방 살림살이 전부다. 방안으로 들어간 선생은 식사시간 외엔 나오질 않는다. 병원과 서울 본사에 갈 때나 더러 방문객이 있으면 의관을 갖추고 나오지만 나머지 시간엔 늘 잠옷차림으로 방안에만 있다. 나는 선생의 방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세끼 식사는 내 집에서 한다. 식사 준비가 다 되어갈 즈음 전화를 한다. 문제는 거기부터였다. 딱 일 분 거린데 통화한 다음 밥과 국을 퍼놓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시 데워야 할 때가 많다. 선생이 늑장부리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곧장 딸내미 방으로 들어가 딸을 깨우느라 시끌벅적. 딸내미는 먹느니 마느니 고집을 부리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 혼자 나오기도 한다. 딸내미도 아프고 선생도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나마 건강한 게 나뿐이라는 것 잘 안다.

그러나 내 안에 밥 차리던 따뜻한 마음은 간데 없고 짜증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모욕당한 듯 억울하고 분하다. 내가 몸종이요? 내가 식모요? 도대체 그 태도가 뭡니까? 소리쳐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꾹꾹 참는다. 꾹꾹 참는 모습은 고스란히 두 사람을 압박하며 무지하게 불편하게 한다는 것 잘 안다. 그래도 나는 입을 꽉 다물고 갑질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내가 누군가. 토굴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은 서원을 평생 품어오지 않았던가. 그렇지, 혼자 토굴로 들어갔더라면 이런 부딪침은 없었을 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딪치지 않고 어찌 닦아지겠나 싶다. 토굴과 인연이 없었던 것, 토굴로 들어가지 않은 것, 나 같은 중생에겐 외려 큰 가피이다. 토굴 수행이라는 내 꿈은 여전하지만, 영영 이루지도 못할 꿈이지만, 절대 이룰 생각도 없다.

내가 모든 번뇌의 불꽃을 끝까지 멸하였을 리 결코 없지마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라는 목적도 없지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게 삶이려니,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모가 깎이는 이 시간이 곧 존재의 사건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시간을 차근차근 씹어 삼키는 일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제1의제이다.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